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일본계란생산자협회(JEPA) 설립 준비

일본계란생산자협회(JEPA)는 2006년도 사업으로 생산자가 중심이 된 계란조직의 강화와 회원의 확대, 중앙과 지방의 양계조직의 의사소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설립하고 설립한 지부가 각지방 양계협회의 중심이 되어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란생산자협회 설립에 22개 지방의 20개 단체로 늘어났다. 일본계란생산자협회는 지부설립을 권장하는 지부활동비로 회원수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부는 각 지방의 양계협회내에 사무국을 위탁하고 있어 JEPA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협회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전일본 ISD협회 설립

지난해 11월 25개 회사와 양계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전일본 ISD협회의 설립총회와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전일본 ISD사는 작년 8월부터 네덜란드의 핸드릭스·제넥티스사(HG)와 산란계인 데칼브, 이사, 바브킵, 쉐바종계의 일본에서 독점 판매계약을 종결하고 종계·부화장에 의한 새로운 보급조직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전일본 ISD사는 종계·부화장 24개사와 찬조회원 1개사로 구성되어, 앞으로 공동광고·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설립총회 후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2005년 헤드릭스회사가 이사회사를 매수하여 일본의 판매체제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다(계명신문 발췌).

#### 계란·계육 요리 콘테스트 개최

기후짱(岐阜縣)양계협회는 기후 시내에서 제7회 계란·계육 요리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이 콘테스트는 기후짱내의 계란·계육의 소비촉진과 식육(食肉)추진, 올바른 지식의 보급계발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내일의 식탁을 담당하는 지역 내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사람들에게 계란·계육의 아이디어 요리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의 테마는 「발효식품과의 조화」이며, (1) 지역에서 생산한 계란이거나 토종닭 가슴고기 또는 양쪽 모두, (2) 발효식품을 한 가지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요리부문과 간식부문을 포함한 525명이 응모하여 제1차 심사를 통과한 23명이 제2차 실기 심사에 임하였다.

심사위원장인 기후여자대학교수는 「금년 콘테스트는 발효식품과의 조화라는 어려운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준이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제2차 심사에 출품된 23점에 대한 요리집을 작성하여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여 널리 홍보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빨매와 조류인플루엔자·대량 폐사 관련조사

일본 환경부는 18일 구마모토현(熊本縣)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야생 빨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바이러스의 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미야자끼현(宮崎縣)과 오카야마현(岡山縣)에서 금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양계장에서 대량 폐사한 닭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환경부는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빨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 이외에 소동물물을 포식(捕食)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빨매가 발견된 주변에서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분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문제의 빨매는 암컷으로 1월 4일 한 마을에서 쇠약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바로 폐사되었다.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쇠약한 것에서 납중독이 의심되어 조사하였다. 납중독은 불명확하지만 동시에 실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돗토리(鳥取)대학농학부부속연구센터에 자세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바이러스의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개인통신원).

### 일본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제조판매 승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3종류의 제조판매를 승인하였다. 승인된 백신은 (주) 미생물화학연구소의 「京都微研의 폴세바 AI, 日生研(주)의 「나백AI, (재)화학 및 혈청치료법연구회의 「오일백스AI」로 모두 불활성백신이다.

이 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등 긴급개발사업」의 조성을 받아 일본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사용하는 오일이쥬밴드가 3개사와 약간 다른 北研의 불활성 백신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북연(北研)도 지난 1월 18일 식품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끝나 가까운 시일내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백신은 H5N1주와 H7N7주를 조합한 것으로, 사용법은 4주령 이상의 닭에게 각부근육에 1수당 0.5ml 주사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산란계업계가 양계산업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백신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정부와 가금질병소위원회는 「발병을 억제하여도 감염은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에 따라 만일의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조승인이 되었어도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계명신문 발췌).

### 농림수산장관에 뜬 소문 피해방지 등 요청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미야자끼현(宮崎縣)에서 주지사가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농림수산장관에게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의 강화 등을 요청하고 동시에 「미야자끼현의 닭고기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맛있으며 농림수산장관도 먹을 수 있도록 가지고 왔다」면서 지역특산물인 토종닭 숯불구이를 장관에게 주었다(계명신문 발췌).